

농촌 청소년 단체의 향토문화 발굴 전개에 관한 연구

최민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촌사회교육전공)

A Study on the Exploratory Activities of Rural Youth Groups for Folk Culture in Korea

Choi, Min-Ho

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uwon 441-744, Korea.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conceptualize the folk culture, to analyze the cultural attitude of the rural residents and extension workers, to suggest the guidelines for the exploratory activities of rural youth groups for the folk culture, and to apply the guidelines to a sample rural community. The literature and field survey, and interviews are applied to fulfil the objectives.

Most of rural residents and extension workers were favorable to the exploratory activities of rural youths for folk culture. The folk culture were classified into the folk song, the art, the legend, the religious, the food, the historic human being, and the folk festival.

The guidelines of the exploratory activities for the each folk culture categories were presented in terms of meanings and objectives, readiness, exploratory activity, methods, and preservation. The guidelines were applied to a sample rural community, Sudong-Myon, Namyang ju-Gun, Kyongki-Do.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많은 사회변동이 일어났으며, 이의 영향은 도시와 농촌에 다 같이 매우 큰 영향을 끼쳐왔다. 농촌인구는 매우 빠르고 큰 규모로 도시로 이동하였으며, 이로 인한 농촌의 사회, 문화, 경제적인 변화도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 뚜렷한 하나의 변화는 매스컴의 영향에 의한 우리 고유문화의 급속한 쇠퇴이며, 또다른 하나는 젊은 인구의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한 청소년 단체활동의 위축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그동안 4H가 중심이 되어왔던 농촌에서의 청소년 활동이 위축되어짐으로 해서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도시에 비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오고 있는 농촌 지역사회의 문화적 맥을 이어나갈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적 차원에서는 그 지역사회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그리고 청소년 단체에 있어서는 단체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향토문화 활동영역을 개발하고, 농촌청소년 개인에게는 자기 자신과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아울러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협(1994)은 농촌청소년의 열악한 문화환경의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여 주는 이상으로 농촌사회의 전반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되며, 농촌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아개발 및 성취가 가능하도록 문화의 생활화를 지향하여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윤희(1994)는 농촌청소년들의 심각한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서도 그들의 문화생활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오늘날은 농촌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농촌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농촌청소년 단체로 하여금 그들 지역사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향토문화를 발굴·보존하는 활동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 청소년 단체가 그들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보존하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실제적 지침이 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 청소년 단체(읍·면 4H회 혹은 학교 4H)가 그들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보존하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농촌개발요원들에게 실제적 지침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향토문화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유형을 설정한다.
- 2) 향토문화에 대한 농촌주민과 농촌개발요원의 의식수준을 분석한다.
- 3) 향토문화 발굴단체로서 농촌청소년 단체의 활동 현황을 고찰한다.
- 4) 청소년 단체가 향토문화를 발굴하여 이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대한 지도지침을 각 유형별로 제시한다.
- 5) 이 지침의 활용방안을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6)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농촌 청소년 단체가 향토문화의 발굴 및 전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을 한다.

3. 연구범위

이 연구는 오랜 역사동안에 형성된 농촌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보존·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조사지역을 농촌

지역사회로, 그리고 이의 수행을 그 지역사회의 청소년 단체가 이행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4. 연구내용

연구목적의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단계별로 조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농촌지역사회 주민과 농촌개발요원의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 이해와 인식정도를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2) 문헌연구 및 농촌지역사회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단체가 발굴해야 할 향토문화의 유형별 범주를 정했다. 3) 사회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농촌청소년 단체활동의 변동과정과 발굴주체로서의 농촌청소년 단체의 활동현황을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4) 향토문화를 발굴하여 이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기초조사의 단계에서부터 실제 활동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농촌 청소년 단체를 농촌개발요원들이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5) 이 지침서를 청소년 단체가 실제로 지역사회의 문화 발굴 및 전개를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사례마을을 정하여 그 활용방안안의 모형을 제시했다. 6)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농촌지역사회의 청소년 단체가 향토문화의 발굴 및 활동전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을 했다.

5.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고찰과 실제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사회변화 관련분야, 농촌청소년 활동 관련분야, 전통문화 관련분야 등의 이론적인 부분은 문헌자료 고찰을 중심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주민들과 농촌개발요원의 향토문화 인지도 및 발전방향에 대해 1993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역주민의 경우는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주민 138명을 직접 면접 조사하고, 농촌개발요원의 경우 전국농촌지도소 농촌청소년담당지도사 총 17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우편발송하여 143명으로부터 응답지를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으로 제시할 청소년 단체활동 지침의 제작과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을 위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II. 향토문화의 개념 고찰과 유형설정

1. 전통문화의 개념

향토문화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날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농촌사회의 성격과 농촌문화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전통문화에 관한 성격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이나 전통문화에 대한 논의는 이에 대한 파악이 다양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는 크게 전통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으로 대별될 수 있다. 부정적 시각에서 전통을 정의하는 사람들은 뒤르켕, 퇴니스, 베버 등을 들수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뒤르켕(Durkeim 1964)은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특성을 기계적·유기적 연대로 논하는 과정에서, '전통주의는 비이성적이고 기계적인 연대의 한 부분'이라고 하며 전통과 이성간의 대조를 강조했다. 따라서 뒤르켕은 전통이 현대 도시사회에서 쇠퇴하게 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퇴니스(Tonnies 1963)는 전통에 대해 '전통은 이성의 의지가 아닌 자연의지(natural will)의 한 부분이고 거기에서는 성향이나 습관,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정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베버(Weber 1964:92)는 전통을 근대화하는 사회에서 변화를 방해하는 수동적인 힘이자 동시에 능동적인 힘으로 보았으나, "과학적" 분석을 위해, 현대와 구분함에 있어 "완전히 비합리적이며 情的으로 결정되는 행위요소들"로 정의했다.

이에 비해 전통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거스필드(Gusfield 1967)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변동을 다루면서, 비서구권의 전통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지적하였는데 첫째는 전통문화를 획일적 규범이나 가치로 간주하는 오류 둘째, 전통은 새로운 문화와 갈등관계에 있으면서 마침내는 새문화에 의해 대체된다는 오류 셋째, 전통성과 근대성은 상호 맞서는 관계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오류 넷째, 근대화는 전통을 퇴화시킨다는 오류 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동일(1966)은 문학을 중심으로 '전통의 퇴화와 계승의 방향을 논의하면서, 전통에 대한 의미와 의의를 오해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는데 그 첫째는 전통은 보편적 측면과 특수한 측면의 통일적 결합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둘째, 전통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형성 변모되는 동시에

사회에 발전에 기여한다는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며 셋째로 전통은 긍정적인 계승과 부정적인 계승이라는 양면을 통해서 발전적 계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넷째로는 전통이 미래로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라 하였다.

이처럼 전통에 대해서 상반되는 논의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전통 논의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해서는 먼저 전통이란 말의 기본 개념을 규정하고 난뒤 전통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그 바탕위에서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논의와 새로운 문화수립에 있어서의 전통의 계승과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전통이나 전통문화의 개념설정이 우선 요구되는 것이다. 먼저 박미란(1987)은 전통의 개념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통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세상 모든 존재가 과거를 지닌다. 아울러 현존하는 모든 형태나 양식은 모두 과거의 양식과 상관되어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모든 사물이나 현상은 전적으로 새로이 나타난 것이라기 보다는 과거의 양식과 연관되어 이를 단순히 연장하거나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박미란(1987)의 전통의 개념에 대한 관점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항상 과거 역사를 중시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이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과거란 단순히 흘러간 일회적 가치를 지닌 사실로서가 아니라 항상 오늘날의 현상과 결부된 시사성을 가진 소재로서 존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다름아닌 세상 만물에 공통된 연속의 메카니즘이라 볼 수 있다. 즉, '전통' 또는 '전통적'이란 표현은 이러한 연속화 현상을 지칭하는 사물이나 현상의 지속성, 반복성을 서술, 설명하고자 할 때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전통은 현존하는 관습처럼 단순히 관찰되는 사실이거나 언급됨으로 그것의 의미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다. 전통은 가치판단을 나타내는 관념'이다. 그리고 '전통은 적어도 한 세대 이상으로 후세에 전해지는 것이고 안전한 보관을 위해 건네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통은 한 개인에게서 판단의 경향이 충분하도록 이를 육성하고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은 초시간적인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되 그 구체적 내용은 시대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경, 조정 또는 재창조 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 전통을 '불변한 것', '오래되어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전통을 '변하지 않는 가치로서 선택적으로 재구성 되는 것' 또는 '현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뿌리로서의 힘'이라는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전통문화를 과거에서 부터 현재로 전송된 문화, 현재에도 살고 있는 과거, 현재까지도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과거의 문화유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때의 문화유산은 물론 가시적인 유형의 문화유산과 가치관, 윤리규범 행동의 선호, 삶의 스타일과 같은 무형의 문화유산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통문화의 긍정적 개념을 살펴 보았는데 이는 향토문화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 향토문화의 개념

향토문화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향토사회가 농촌사회나 도시사회에 비해 갖는 차이점을 밝혀야 한다. 향토사회, 농촌사회, 도시사회라는 용어는 모두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라는 말속에 포함되는데 이들이 갖는 차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community」에 대한 견해와 관점은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Cook(1950)은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근접해 있는 일정지역, 균거해 사는 일정한 인구, 역사적 유산의 공유, 여러종류의 봉사단체(관공서, 산업체, 학교), 공동생활에의 참여, 지역내 단결과 집단의식, 협동의 가능성 등을 들고 있으며, Olsen(1961)은 지역사회를 일반적으로 제한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동의식을 갖고 조직된 관계(organizes relationship)를 통해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 분담하는 인간 집단으로 일정 지역성을 강조한다.

또 Hillery(1955)는 다른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분석하여 지역사회를 일정한 지리적 영역 하에서 공동의 유대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집단으로 파악했으며, Sanders(1959)는 지역사회를 소속감과 향토애를 바탕으로 유대의식을 가지며 하나의 사회적 가치체계를 갖는 사회로 이해했다.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가 이처럼 학자들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최소한 지역사회가 지연·공동의 유대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세가지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도식은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아주 다른 개념, 즉 '地緣的' 지역 사회와 관련되는 개념과 '공동체'와 관련되는 개념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연적 지역사회'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지연이 기본요소가 되는 정착형태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농업과 함께 나타났으며, 특정지역에 대한 강한 정서적 집착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공동체'는 지연이라는 특징보다는 '개인간의 친밀도가 높고, 정서적 집착이 깊으며, 도덕을 바탕으로 연속성을 가지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독일어의 게마인 샤프트(Gemeinschaft)와 관계가 깊다.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의 길을 걷기 전인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사회는 기본적으로 농업중심의 농촌사회였다. 즉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은 지연적 사회였고 공동체 의식은 상당히 강하여 도시와 비교할 바가 되지 않았고 '향토'와 비교하여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농촌은 빠른 속도로 변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사회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 농촌주민의 고령화, 겸업농가의 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특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또한 농촌의 문화, 가치, 규범도 상당히 서구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의 영향은 상당히 타격적이어서 도시주변부의 농촌은 대부분 도시로 변모했고, '남아있는 농촌'도 농촌 고유의 특성이 변형되거나 상실될 위험에 처해있다. 즉, 이는 지연에 근거하며 공동체 의식을 갖고 밀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향토사회 역시 소멸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 의한 지연(地緣)의 상실은 전반적인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특히 도시에 있어서는 그 변화가 너무나 심오하고 빠르기 때문에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리하여 도시사회에 있어 정착이나 지연이란 개념은 낡거나 사라질 것으로 간주되며 존속한다 할지라도 도시화시대 이후의 정체된 상황에서나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교통·통신망이 더욱 잘 갖추어지고 산업화의 속도가 빨라져만 가는 현실에서 고유한 의미의 향토사회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연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둔 사회적 상호작용이 매우 밀접한 사회를 향토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를 향토문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향토문화는 지연과 공동체 의식과 밀접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던 사회에서 향유되었던 전통문화를 '전통'에 가깝게 보존하고 현실의 삶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이다.

3. 향토문화의 유형

향토문화를 유형화한다는 것은 향토사회에서 '전통성'을 획득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구분하는 작업이다. 이때의 문화유산은 크게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나누어 질 수 있고 무형의 문화유산은 다시 가치관, 윤리규범, 삶의 양식 등 여러 범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향토문화의 유형은 일반적인 문화의 유형과는 달리 시간의 변화와 공간적 위치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유형의 폭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존재하는 것만으로 일반적인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저지를 위험이 존재하므로 여기에서는 향토문화에 관한 일반적이고 조작적인 정의들과 현재 전통문화·향토문화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의 실제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향토문화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정지웅(1985)은 農村文化를 관습, 전통, 태도, 규범, 생산방식으로 나누었고 특히, 신앙구조를 강조하여 농촌문화를 전통적 신앙과 현대적 종교, 의·식·주생활, 여가생활로 나누기도 했다.

한국청소년연맹(1987)에서 청소년들의 전통문화활동을 위하여 전통문화의 유형으로 축제, 미술, 방언, 전설, 향토음식, 세시풍속, 민속놀이, 민간신앙, 민요, 인물, 유적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교생의 전통문화 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이재일(1992)은 전통문화를 의례, 사회생활, 의·식·주생활, 세시풍속, 민속예술, 전승놀이, 구비전승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현재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설립되어 있는 전국 문화원에서 간행되는 출판물에는 향토문화를 고장의 이해, 세시풍속, 통과의례, 의·식·주,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요, 인물, 설화, 건축물, 음악 등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물론 이 출판물들은 자신의 고장에만 존재하는 향토문화를 다루었기 때문에 각각의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은 서로 상이한 점이 많아서 연구자가 다시 재분류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연구자나 출판물이 제시하고 있는 향토문화의 유형은 각기 다른 논의의 수준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향토모습의 이해 : 향토의 역사적 변천, 자연환경, 향토의 특성
- 2) 민요 : 농요, 어업요, 부녀요, 동요, 잡요, 노동요, 의식요
- 3) 민속놀이 : 개인놀이, 집단놀이
- 4) 미술문화 : 회화, 조각, 건축, 공예

- 5) 전설 지명 : 설화, 민담, 실화, 야사
- 6) 민간신앙(종교문화) : 동제, 굿,
- 7) 의·식·주
- 8) 인물과 사상
- 9) 민간속신어 및 방언 : 사투리, 은어, 괴변, 해학 등
- 10) 통과의례 : 임신과 출산, 백일, 첫돌, 회갑, 관례, 혼례, 상례, 제례
- 11) 세시풍속
- 12) 축제

4. 발굴대상 향토문화유형 설정

청소년 단체가 향토문화 발굴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향토문화를 인지·습득하여 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촌청소년 단체가 발굴해야 할 향토문화의 범주를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준거를 설정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의의성, 가능성, 적합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농촌청소년 활동의 일환으로서 향토문화를 유형화 하려고 할 때는 첫째, 농촌청소년들이 향토문화를 발굴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향토에 대한 애착심이 길러질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하고 둘째, 농촌청소년의 수준에서 실제적인 발굴 보존의 작업이 가능한 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세시풍속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가 세시놀이가 대부분이지만 절기마다 장만해서 먹는 음식은 청소년의 수준에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진다. 세번째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현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향토사회에서 발굴활동이 무리없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관혼상제의 통과의례는 전반적인 변화 수준과 속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의 발굴활동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청소년들이 발굴활동을 통하여 농촌생활의 자긍심과 독립심 및 자아정체감을 갖게 하는 교육적인 의의가 부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준거가 있겠지만 이상 4가지의 준거를 중심으로 앞에서 정리된 향토문화의 유형중 8개를 농촌청소년의 향토문화발굴활동 및 전개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 1) 향토모습의 이해 : 향토의 역사적 변천, 자연환경, 향토의 특성
- 2) 민요 : 농요, 어업요, 부녀요, 동요, 잡요, 노동요, 의식요

- 3) 민속놀이 : 개인놀이, 집단놀이
- 4) 미술문화 : 회화, 조각, 건축, 공예
- 5) 전설 지명 : 설화, 민담, 실화, 야사
- 6) 민간신앙(종교문화) : 동제, 굿,
- 7) 의 · 식 · 주
- 8) 인물과 사상

III. 지역사회주민과 농촌개발요원의 향토문화에 대한 의식

1. 지역사회주민의 향토문화에 대한 의식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거주지역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문의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5.8%가 대단히 자랑스럽다, 23.9%의 자랑스럽다, 63.0%가 그저그렇다, 5.8%가 자랑스럽지 않다, 1.4%가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주민의 29.7%가 거주지역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으며 63.0%는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자가 34.5%, 여자가 20.9%로 남자가 더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및 교육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1. 지역주민의 거주지역에 대한 애착 정도

구 분		대단히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그저 그렇다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자랑스럽지 않다		계	
		f	%	f	%	f	%	f	%	f	%		
연령	40세 이하	1	2.9	12	35.3	18	52.9	2	6.0	1	2.9	34	100.0
	41~45세	1	2.1	7	14.6	38	79.1	1	2.1	1	2.1	48	100.0
	46세 이상	6	10.7	14	25.0	31	55.4	5	8.9	0	0.0	56	100.0
성별	남	7	7.8	24	26.7	56	62.2	2	2.2	1	1.1	90	100.0
	여	1	2.1	9	18.8	31	64.5	6	12.5	1	2.1	48	100.0
학력	국졸이하	3	7.0	8	18.6	28	65.1	4	9.3	0	0.0	43	100.0
	중졸	1	1.7	18	30.5	36	61.0	3	5.1	1	1.7	59	100.0
	고졸이상	4	11.1	7	19.4	23	63.9	1	2.8	1	2.8	36	100.0
각 항목별 계		8	5.8	33	23.9	87	63.0	8	5.8	2	1.4	138	100.0

향토문화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라고 설문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전체주민의 39.0%는 그들 지역에서 대표되는 향토문화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보존할만한 향토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42.2%, 여자 33.3%로 남자가 향토문화의 의식 및 보존에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고 학력별로는 국졸보다 중졸이상의 학력소유자가 보존의 필요성에 높은 응답을 했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향토문화를 발굴,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72.4%가 보존의 필요를 강하게 주장했으며,

연령별, 성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않고 있으며, 학력별로 볼 때 고졸이상이 83.3%로 발굴, 보존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향토문화를 발굴 보존하는 활동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1%가 찬성의 의사를 표시했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활동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역사회에 보존 및 발굴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40.6%가 모른다에 응답하여 향토문화의 발굴보존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향토문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음을 나타냈다.

Table 2 지역주민의 향토문화에 대한 인식

구 분	전혀들어 본적 없다		한두번 들 은적 있다		생각해 본적 있다		특정향토 문화생각		보존필요성 주장했다		계		
	f	%	f	%	f	%	f	%	f	%			
연 령 별	40세 이하	6	17.6	15	44.2	7	20.6	6	17.6	0	0.0	34	100.0
	41~45세	6	12.5	25	52.1	8	16.7	7	14.6	2	4.1	48	100.0
	46세 이상	11	19.6	21	37.5	11	19.6	9	16.1	4	7.2	56	100.0
성 별	남	14	15.6	38	42.2	16	17.8	18	20.8	4	4.4	90	100.0
	여	9	18.8	23	47.9	10	20.8	4	8.3	2	4.2	48	100.0
학 력 별	국졸이하	12	27.9	22	51.2	1	2.3	7	16.3	1	2.3	43	100.0
	중졸	7	11.9	23	39.0	16	27.1	9	15.2	4	6.8	59	100.0
	고졸이상	4	11.1	16	44.4	9	25.0	6	16.7	1	2.8	36	100.0
각 항목별 계		23	16.7	61	44.2	26	18.8	22	15.9	6	4.3	138	100.0

2. 농촌개발요원의 향토문화에 대한 인식

농촌개발요원들의 향토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 농촌지도소의 청소년 담당 지도사에게 향토문화에 대하여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라고 설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응답에서 0.7%는 전혀 모른다, 14.0%는

들어본 적있다, 36.4%는 생각해 본적 있다, 32.8%는 특정지역의 향토문화에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본적 있다, 16.1%는 특정 지역의 향토문화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여 본일이 있다고 각각 응답했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에 보존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력별, 지도경력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Table 3 지역주민의 향토문화에 대한 인식

구 분	전혀모른다		들어 본 적 있다		생각해 본적 있다		특정향토 문화생각		보존필요성 주 장		계		
	f	%	f	%	f	%	f	%	f	%			
연 령 별	35세 이하	0	0.0	8	12.0	27	40.3	23	34.3	9	13.4	67	100.0
	36~40세	1	2.1	10	20.8	14	29.2	18	37.5	5	10.4	48	100.0
	41세 이상	0	0.0	2	7.1	11	39.3	6	21.4	9	32.2	28	100.0
지도 경력 별	10년 이하	0	0.0	8	14.8	20	37.0	20	37.0	6	11.2	54	100.0
	11~15년	1	1.9	10	19.6	16	31.4	16	31.4	8	15.7	51	100.0
	16년 이상	0	0.0	2	5.3	16	42.1	11	28.9	9	23.7	38	100.0
학 력 별	고졸	0	0.0	8	14.0	21	36.8	19	33.3	9	15.9	57	100.0
	전문대졸	0	0.0	7	23.3	10	33.3	11	36.7	2	6.7	30	100.0
	대졸이상	1	1.8	5	8.9	21	37.5	17	30.4	12	21.4	56	100.0
각 항목별 계		1	0.7	20	14.0	52	36.4	47	32.8	23	16.1	138	100.0

또한 농촌개발요원들은 향토문화의 활성화와 농촌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42.7%가 연령별, 학력별, 지도경력별로 큰 차이 없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토문화를 발굴·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87.9%가 보존의 필요를 적극 주장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향토문화를 발굴·보존하는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0% 이상이 찬성의 의사를 표시했으며, 지역사회에 보존 및 발굴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4%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IV. 발굴단체로서 농촌청소년 단체의 활동현황

1. 농촌청소년 단체의 변동과정 및 현황

우리나라의 청소년 단체는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개개인의 인격형성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참여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되어 다양한 형태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 단체는 크게 사회봉사단체, 청소년복지단체, 학술진흥단체, 이념단체로 나눌 수 있으며, 교육연수 및 훈련, 연구활동, 지역사회의 개발 및 봉사활동, 체육활동, 국제교류활동, 여가활동, 조직강화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청소년단체 가운데 농촌의 대표적인 청소년 단체로 간주 할수 있는 것은 1947년 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전개해온 4-H회를 들수 있는데 4-H회 활동의 변동과정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4-H회의 발달과정

4-H회란 13~29세의 농촌청소년들이 지(知)·덕(德)·노(勞)·체(體)의 이념아래 모여 건전한 인격을 연마하고, 영농기술이나 생활기술의 실전을 중심으로 배우게 하여 미래 농촌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습단체로서 1947년에 처음으로 농촌청소년구락부로 그 조직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1950년대에 와서 4-H회는 국가의 농촌청소년 지도 사업으로 채택되어 오늘날까지 존속 발전되어 왔고 현재 농촌진흥청 지도국 청소년과에서 전국의 4-H를 총괄 지도하고 있다.

1960년대 4-H 활동은 식량 공급이 어려웠던 시기에 농촌 발전을 위해 지·덕·노·체의 이념으로 점화된 이래 농촌 청소년들의 과제활동을 지도하여 새식작과 기술을 선도·실천케 하고, 생산증대·농촌문화창달·지도력 배양 등을 기치로, 한때 농촌운동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또 1970년대의 4-H 활동은 농업의 기간적 영농후계 세대를 육성하여 녹색혁명을 이룩하는 주역이 되게 하였고, 새마을 운동의 모체로서 농촌의 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으며, 80년대는 비닐농법 보급으로 백색혁명을 이룩하는 등 농촌의 산업사회로의 발전에도 원동력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가까이 오면서 이농현상, 도농격차, 외국농산물수입개방 등

으로 농촌청소년의 인구가 줄어들고 농업경쟁여건의 악화로 4-H활동은 침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 4-H회의 현황과 활동

4-H회의 주요활동은 농촌청소년들의 급격한 이농현상에 대비하여 어린 청소년에게는 농심계발, 충·효·예의 실행,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 등 전인교육 활동을 주로 하게 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군복무를 마친 상태에서 영농정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나이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과학영농기술의 실천 및 소득증대활동을 통한 영농정착을 실현하도록 각종 영농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약 500만명의 회원을 배출한 4-H회는 Table 4와 같이 한때 그 조직이 비대하여 100만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으나 1986년을 고비로 하여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조직이 크게 비대했던 1986년에는 33,932개의 조직에 101만 1천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도자수만도 17만 9천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3년 전국에 6,640개 조직에 13만 1천명의 회원을 가지는 규모로 적어지게 되었으며, 자원지도자수도 6천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Table 4. 4-H회의 연도별 현황 (단위:개, 천명)

구 분	1970	1975	1980	1986	1993
조 직 수	29,806	34,698	32,921	33,932	6,640
회 원 수	633	688	608	1,011	131
자원지도자수	56.7	81.4	133.7	179	9.6

자료: 농촌진흥청(1994), 업무보고

또한 4-H회의 93년 12월말 현재의 형태별 현황은 Table 5와 같은데, 조직수는 영농 4-H, 학생 4-H, 특수 4-H를 합쳐 모두 6,640개이고 회원수는 131,361명으로 영농 4-H보다 학생 4-H가 조직수에서는 거의 두배에 가깝고, 회원수에서는 3.7배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이 수치가 92년말에 비하여 영농 4-H가 회원수 2,047명이 증가했고, 학생 4-H는 회원수 3,843명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농촌청소년

Table 5. 4-H회의 연도별 현황 ('93. 12월말)

구 분	계	영농 4-H	학생 4-H	특수 4-H
조 직 수	6,640개회	2,211	4,148	281
회 원 수	131,361 명	26,681	98,587	6,093

자료: 농촌진흥청(1993), 업무보고

년의 활동에서 학생 4-H회의 비중이 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4-H회의 활동과 관련된 기관은 농촌진흥청과 4-H연맹, 4-H후원회, 클로바 동지회 등이며, 이중 농촌진흥청이 4-H회의 활동에 가장 중심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1994년도 농촌 학생 4-H회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촌진흥청은 우선 학생 4-H회를 자율운영 체제로 활동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동 4-H회 및 학교 4-H를 각각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동 4-H회는 회원수의 절대부족으로 그 활동이 극히 미비한 상태에 있으므로 학교 4-H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다.

학교 4-H회는 각 학교의 지도교사로 지도를 담당하게 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4-H활동을 계획·운영하게 농촌지도소가 후원하고 있다. 학교 4-H회의 활동내용을 보면 주 1회 만나서 지도력 개발, 영농과제활동, 봉사활동, 견학 등을 실시한다.

또한 학생 4-H회의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도소 4-H담당 지도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매년 3~4월 60명에게 4-H육성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청소년 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지도자 양성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향토문화 발굴 청소년 단체의 선정

오늘날의 농촌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점차적으로 전통적인 특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해체의 과정을 겪기도 한다. 산업화 과정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이농은 농산물 수입개방의 대외적 압력으로 인한 한국농업여건의 어려움과 교육·문화 환경의 열악화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촌청소년의 숫자도 급격히 감소하여 농촌학교의 분교·폐교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4-H회 활동을 기본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때 리동단위 및 학교단위로 조직되어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수행해온 4-H회의 리동조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에서도 어려움은 더욱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농촌청년의 활동이 더욱 요청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농촌청소년은 위치적으로 미래 농촌사회의 생산활동과 문화활동을 주체적으로 담당할 것이 기대되므로,

이들이 향토에 애착을 갖고 자신의 지역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향토문화의 발굴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농촌청소년 학생 4-H회의 운영체계화 과제활동 그리고 4-H담당 지도사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생 4-H회가 향토문화 발굴과 관련되는 농악놀이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지원도 각급 농촌지도소의 4-H담당 지도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향토문화를 발굴할 청소년 단체로 중·고등학교 4-H회를 정하여 학교의 지도교사와 농촌지도소 4-H담당 지도사가 협의하여 지도하거나 또는 향토문화활동 과제활동 지도자로서 자원지도자를 선정·위임하여 지도하게 함으로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보존시켜 나가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현재에 있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었다.

V. 유형별 향토문화 발굴전개 활동을 위한 지도지침

학교 4-H회가 향토문화발굴 전개활동을 실시할때 농촌지도사,지도교사 및 자원지도자가 지도지침으로 삼기 위한 유형별 향토문화 발굴의의와 발굴내용, 방법 및 도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지도교사 및 자원지도자가 학교 4-H회의 실제적 향토문화발굴 전개활동을 지도 할때는 첫째, 선정할 향토문화가 청소년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지 둘째,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여 활발한 활동의 전개가 가능한지 셋째, 지역사회의 자랑스러운 향토문화로서 적합한지 넷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발할 수 있는지 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 향토모습 조사활동

1) 의의

향토의 다양각색의 여러가지 모습을 직접 찾아다니며 살펴보는 가운데 향토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자연환경을 통하여 향토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애착심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향토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향토의 특색을 알게 되고 향토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보다 나은 향토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욕을 갖게 된다.

2) 사전학습활동

- ① 관찰방법의 결정 - 조사할 내용에 따라서 직접 찾아 다닐 것인가, 아는 사람에게 문의할 것인가, 책 등의 자료를 찾아 볼 것인가를 결정한다.
- ② 관찰내용과 관찰장소의 결정 - 향토의 역사적 변천(마을 명칭의 유래), 향토의 자연환경(주위의 산과 지세), 향토의 행정구역상 구분, 성씨별 가구분포, 향토주민의 주소득업, 향토의 특산물 등을 조사한다.
- ③ 조사할 항목을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항목〉

- (가) 마을의 자연환경 : 위치(면소재지로 부터의 방위와 거리), 마을의 산세 및 지세와 전담의경지정리 상태, 행정구역상의 지명과 옛 지명
- (나) 마을의 역사 : 마을의 생성역사 및 지명의 유래 경위
- (c) 성씨별 가구분포 : 부락개척 당시의 성씨와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성씨의 현황
- (d) 마을의 특징 : 인구(총인구, 남자, 여자), 총가옥수, 주소득업 및 경제상황
- (마) 마을의 조직 : 계(상포계, 혼인계, 관광계 등)

3) 실제활동

- ① 관찰내용과 장소가 결정되면 일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조사활동이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지 않고 향토를 보다 잘 이해하고 향토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은 이해의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 ② 조사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자가 과학자의 눈을 닦는 것이 필요하다. 듣고 본 내용을 메모하고 조사대상이 조사활동에서 갖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한다.
- ③ 향토의 역사에 대해서는 몇분의 나이 많은 지역유지에게 문의하여 정리한다.
- ④ 관련 자료의 수집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한다. 필요할 경우는 사진, 스케치, 녹음 등을 실시한다. 또 사진을 찍을 때에는 자료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 부분을 자세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방법 및 보존

- ① 조사방법은 조사자를 몇개의 조로 나누어서 각조가 조사할 내용을 나누어 조사활동을 벌여 뒤에 한꺼번에 취합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방법과, 한꺼번에 모든 조사자가 시기를 나누어 차례대로 모든 곳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겠다.
- ② 조사활동 후 조사기록의 보존을 위해 모든 자료는 항목별로 기록 또는 녹음으로 체계있게 정리하여 보존되어야 한다. 즉 발굴조사표를 중심으로 사전조사한 것, 현지에서 기록한 사실을 바탕으로 형식에 맞게 재정리·분류하여 스크랩하거나 파일 등에 묶어서 보존한다. 견학 기록물을 잘 보관하는 것은 나중의 조사자들에게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③ 고장모습조사활동의 조사표를 예시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고장모습조사 활동표

조사일 및 시간		날	씨
인	술	자	지도자
조사한 사람			
조사를 위한 준비자료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한 후 느낀점			

2. 민요발굴 활동

1) 의의

우리나라의 각 지방은 지형, 생활권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 언어가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음악 문화를 가지고 있다. 각 지방의 생활환경과 밀착된 노래와 풍물놀이, 춤, 무속음악 등이 중요한 생활양식의 하나로 축적되어 왔고, 또 민속예술로 오늘에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의 음악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곧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한 방편이며, 노래에 투영된 그들의 심성, 지혜, 생활철학까지도 밝혀내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조금 더 거창하게 말하자면 민족심성을 밝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작업들은 그 중요성이 인정받지 못한 채 내버려져 온지 오래되었고, 최근들어 그 중요성을 자각하기는 했지만 이미 민속예술, 생활문화의 유산은 낡고 시들어 소멸 위기에 놓인 형편이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나 민요경창대회 등의 방법을 통해 민속예술의 소멸위기는 일단 극복한 듯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생활 문화라는 바탕이 거의 무시된 채 예능이라는 기능만 살아남게 된 기형적 전승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볼 때 향토와 관련이 있는 민속음악을 연구하는 것은 첫째, 민속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라는 점과 둘째 시기적으로 더이상 늦출수 없다는 긴박성이 내포되어 있다. 또, 노래연구는 직접 노래를 듣고, 기억하고, 따라 부르면서 진행되는 작업이며, 또 이 노래속에는 민속예술이 지니는 순박성과 꾸밈없는 정서가 깃들여 있으므로 이 연구과정은 곧 그러한 심성을 갖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신의 지역과 연관이 있는 노랫가락을 찾아내어 보존하는 활동은 전통문화계승을 위해 매우 중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개개인에게 심어주며 개인의 사고속에 전통과의 강한 끈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노래를 통한 경험인 경우 그 경험은 관념적인 변화가 아닌 실천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구체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사전학습활동

사전학습활동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문헌연구를 들 수 있는데 문헌연구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가능한 간접경험으로서 즉, 강연이나 관련문헌 등을 통해서 지식으로서 민요의 특성과 각 지방의 차이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문헌연구에서 우선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지역과 관련되는

노랫가락들을 확인하는 일이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일차적으로 관련 문헌이나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레코드나 녹음 테이프로 제작된 음악자료가 이용되어야 한다. 간접적으로라도 음악을 통해 지역노랫가락들의 장단과 소리자체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작업은 민요의 기능을 찾는 일이다. 보통 민요는 일과 놀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일노래인 경우는 농사짓는 지역이나 밭일(어업)하는 지역, 산림지역 등 지방의 생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그 생활 방편이 바뀌지 않는한 그때 부르는 노래들도 오랜 세월동안 큰 변화없이 불러져 왔기 때문에 특정 지방의 음악적 특색을 잘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 밖에 음악의 장단이 일의 동작과 맺어져 있는 땅 다지는 소리, 나무내리는 소리 등도 그 지방의 노랫가락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또 의식음악으로서 상여소리와 관련된 노래, 정초에 부르는 지신밟기, 무속음악과 관련된 노래들도 각 지방마다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민요를 단순한 음악 문화가 아닌 생활 문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요의 기능을 찾아 관련지어 이해하는 일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 이때야 비로소 민요가 각 지방마다 다르게 형성된 이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수반되어야 할 관련공부로 우리 나라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생활문화의 측면에서 민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요의 음악적 이해보다는 지방의 문화적 지리적 환경을 파악하는 일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민요연구에서 지리적 개관이 약해보다 먼저 들어가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3) 실제활동

① 공연을 통한 간접경험 : 이는 자신의 고장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민요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승되지 못하는 것들을 새롭게 익히거나 다른 고장에서 전승되는 민요를 통해 민요의 보다 폭 넓은 이해를 돕는 방법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현재 민요공연의 활성화가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1년 단위로 개최되는 <전국민속 예술 경연대회>나 도단위의 문화제나 민속축제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Table 7은 각 지방에서 열리는 민속축제를 소개한 것으로 이러한 축제에서는 지방의 민요를 충분히 들어볼 수 있다. 특히 *표

시한 경우는 그 축제의 주체가 곧 음악인 행사여서 민요의 지방적 특색을 살피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② 지역민요 찾기 : 이 작업은 자신의 고장에서 현재 불려지는 민요를 조사하고 직접 체험하여, 그 민요의 음악적·사회적 기능 등의 여러가지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다.

4) 방법 및 보존

민요답사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 ① 현장답사지를 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노래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는 것으로서 현장의 선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하는 것이 좋다.
- ② 조사지를 선정 한 후 문헌연구를 이용하여 민요의 특성, 민요분포도, 생활권과 관련된 민요의 종류 등을 미리 익힌다.
- ③ 적절한 조사시기를 정한다. 농촌의 실정을 잘 파악하여 농사철에 찾아갈 것인지 이를 피하여 갈 것인지를 정한다.
- ④ 조사인원과 준비도구를 결정한다. 조사인원은 10명 정도가 좋으며 노래를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를 꼭 준비해야 한다.
- ⑤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찾아가 민요를 잘 아는 사람을 찾거나 농악의 상쇠, 민속 예능보유자를 찾는다.
- ⑥ 조사일지를 작성한다. 날짜, 날씨, 시간, 조사환경, 제보자의 연령, 노래제목, 노래가사, 조사한 사람들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Table 7. 우리나라 민속축제 시기와 장소

행 사 명	지 역 및 장 소	시 기
남이장군대제	서울 용산구 용문동	11 월
달맞이 축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1 월
정월대보름맞이 화도진축제	인천 동구 화도진공원	2 월
화홍문화제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일원	10 월
만안문화제	경기도 안산시 문예회관	10 월
행주문화제	경기도 고양시 문예회관	5 월

행 사 명	지 역 및 장 소	시 기
울곡문화제	경기도 파주군 군 관내	9 월
현산문화제	강원도 양양군 고수부지	7 월
단종문화제	강원도 영월군 장릉	4 월
정선아리랑제	강원도 정선군 공설운동장	10 월
강릉단오제*	강원도 강릉시 고수부지	6 월
죽서문화제	강원도 삼척시 고수부지	2 월
노성대추전	강원도 평창군 운동장	10 월
태봉제	강원도 철원군 학교 운동장	10 월
괴산문화제	충북 괴산군 공설운동장	9 월
농자놀이*	충북 청주시	10 월
우록문화제	충북 충주시 공설운동장	10 월
증원문화제	충북 증원군 증원체육공원	10 월
의림문화제	충북 제천시 종합운동장	10 월
백제문화제	충남 공주군 시 일원	10 월
은산별신제	충남 부여군 은산마을 일원	2 월
매현문화제	충남 예산군 군 일원	4 월
만세보령제	충남 보령군 군 일원	10 월
놀이향토제	충남 논산군 군 일원	10 월
모양성제	전북 고창군 모양성	10 월
벽골제	전북 김제군 벽골제	4 월
춘향제	전북 남원시 광한루	5 월
전주대사슴놀이	전북 전주시 실내체육관	11 월
풍남제	전북 전주시 실내체육관	6 월
의암주 논개제전	전북 장수군 의암사	10 월
진남제	전남 여수시 운동장	5 월
옥당제	전남 영광군 공설운동장	10 월
보림문화제	전남 장흥군 강변	5 월
자인단오한장군제	경북 경산군 자인면 일원	6 월
안동민속축제	경북 안동군 시민운동장	9 월
일월신제	경북 영일군 일월사당	10 월
처용문화제	경남 울산시 공설운동장	6 월
소가야문화제	경남 고성군 공설운동장	10 월
아랑제*	경남 밀양시 시 일원	5 월
한산대첩제	경남 창원시 공설운동장	10 월
한라문화제	제주도 공설운동장	10 월
영동굿약마회*	제주시	9 월

자료 : 방일영문화재단, 1994, 향토축제의 가능성과 미래

⑦ 민요 발굴활동 조사표를 예시하면 다음 Table 8과 같다.

Table 8. 민요발굴 활동 조사표

조사일 및 시간		날 씨	
조사장소			
인 술 자		지도자	
조사한 사람			
조사환경			
제보자 성명 및 연령			
노래가사 및 노래 부르는 사람들 모습			
노래에 관한 배경 이 야 기			

⑧ 조사활동의 계속적인 발전과 뒤에 조사할 사람들을 위해서 조사일지와 녹음테이프 등을 토대로 하여 조사한 민요를 따라 불러보고 이를 악보로 남기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민요발굴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으로 가장 신경을 써서 마무리 해야 할 작업이다.

3. 민속놀이 발굴 활동

1) 의의

민속놀이는 민속적인 유희와 오락을 포함하고, 나아가서는 무용과 연극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이다. 유희는 즐겁게 놀며 장난하는 것으로, 주로 어린이들의 육체적 단련과 정서 교육을 위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노는 놀이를 뜻한다. 오락은 쉬는 시간에 기분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노는 일을 말한다. 무용은 고전무용이나 창작무용과는 달리 세시풍속의 하나로서 전승되는 미분화 상태의 종합예술로서의 무용으로 한정된다. 연극은 인형극이나 가면극처럼 민속극으로서의 독립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놀이'의 요소가 잘 드러난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이러한 민속놀이들이 점차적으로 산업화된 생산품의 소비와 공식

적 교육의 확대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이에 전통민속놀이에 내재되어 있는 과학정신 및 향토역사성을 이해하고 이를 전승하는 일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또한 놀이와 오락이 필요한 오늘날 현대산업 사회에서 새로운 양식의 놀이문화를 발굴하는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2) 사전학습활동

민속놀이는 크게 개인놀이와 집단놀이로 나뉘어진다. 개인놀이와 집단놀이를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놀이가 갖는 성격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곧, 여러사람의 집단적인 힘이나 화합이 아니고는 원칙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을 집단놀이로 취급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놀이는 집단적인 힘이 없이 한 두 사람에게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개별적 차원의 놀이를 뜻한다. 개인놀이로는 고누·공기놀이·그네뛰기·그림자놀이·널뛰기·비석차기·웃놀이·계기차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집단놀이로는 가마싸움·강강술래·관등놀이·뾰족다리 밝기·동채싸움·햇불싸움·줄다리기 등을 들 수 있다.

개인놀이는 놀이주체자들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놀이 양상이 다른데, 소년·소녀의 놀이, 남자 어른들의 놀이 및 부

녀자들의 놀이로 대별되며, 집단놀이는 대체로 한 마을 이상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놀이로서, 지역적 특성(향토성)이 강조되는 향토축제의 성격을 띤다. 개인놀이나 집단놀이는 놀이 방법이나 전승양상들이 각기 다르나, 계절과 절기에 따라 일정한 놀이가 수행되는 까닭에 다분히 세시풍속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물론, 계절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놀이들도 있으나, 그것은 어린이들의 단순한 놀이 성격을 띤다. 따라서 집단놀이는 세시풍속의 한 행사로서 지방마다 다른 독특한 양식으로 전승되며, 신앙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놀이가 많다. 신앙성이 강조되는 놀이의 예로 다리굿·연등놀이·관등놀이·탑돌이·지신밟기·입춘굿놀이·대감놀이·단오굿놀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놀이는 다분히 무속적 성격을 띤다. 개인놀이의 발굴은 놀이의 성격상 개인이 주체가 되어 실시를 해야 할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몇가지의 전통적인 개인놀이의 현대적 의미를 살피는 것으로 개인놀이 발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단민속놀이의 발굴에 초점을 두겠다.

다음은 현재에 있어서 뛰어난 과학성을 보여주는 개인놀이들이다.

- ① 연날리기 : 설을 전후해 정월 대보름까지 행해지는 놀이중의 하나인 연날리기에는 과학의 역사가 적지 않게 배어 있다. 연날리기는 현대의 '정보통신'의 효시라 할 만큼 과학적인 놀이에 속한다. 물론 최근의 정보통신이야 무선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달리 연락 수단이 없던 전통사회에서 연은 매우 긴요한 존재로서 정보통신 수단으로 유용하게 쓰인 사례들이 많이 있다.
- ② 자치기 : 큰 막대기와 작은 막대기로 거리를 재서 승패를 결정하는 자치기는 도량형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과학적인 놀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제기차기 : 제기차기는 자세가 태권의 원리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역시 과학적 원리가 담긴 생활체육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진다. 제기차기가 주로 겨울에 이뤄졌던 것은 아마 이 시기가 농한기여서 운동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엽전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며 떨어지도록 하는 제기의 술도 매우 과학적인 고안이라 할 수 있겠다.

3) 실제활동

연극 무용 등 집단민속놀이를 발굴하는 활동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여러방법들이 원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조

사 활동만으로는 민속놀이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속놀이 전반에 걸쳐 차지하는 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다른 부수 활동과 적절한 연계를 맺을 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헌조사이다. 즉 민속놀이를 발굴할 때, 발굴자가 사전 지식이 없이 제보자에게 새롭고 신기한 것을 '배우는' 입장에 처해서는 곤란하므로, 발굴자는 능동적 입장에서 문화를 발굴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의 고장의 읍지(邑誌)·지리지(地理誌)를 비롯한 고문헌이나 기존의 조사보고서 및 선행 연구서 등을 참조하여 발굴대상의 민속놀이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집단민속놀이는 각 지역의 향토성·역사성·사회성 등의 제 특성에 의해 전승되는 까닭에, 이러한 모든 것을 발굴자가 알고 있어야 일련의 흐름속에서 발굴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헌조사를 1차 활동이라 할 때 1차활동은 2차 활동인 현지 조사의 올바른 길잡이가 될 것이며 민속현장에서의 민속놀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립되는 것이다. 민속놀이를 놀이 자체만으로 분리해서 발굴하는 활동은 현장감 혹은 삶과 놀이와의 유기적 관계를 무시하는 것으로 그만큼 조의의가 반감되는 것이다.

민속놀이는 전통적 삶과 그 삶을 통한 놀이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는 전승집단의 삶에 대한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의 두 측면에서의 접근이 함께 요구되는데 문헌조사는 바로 이런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체적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1차 활동인 문헌 조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4) 방법 및 보존

문헌조사 이후 민속놀이가 행해지는 지역에서의 구체적 인 현장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사지역의 역사, 사회, 문화,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마을의 성립과 주민들의 생활구조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 낸다.
- ② 놀이가 행해지는 시기에 현장에 참여한다.
- ③ 현장에 참여하여 놀이가 유래된 역사적 사건이나 발생 원인 등을 조사 기록한다.
- ④ 놀이기구 제작시 준비사항과 금기사항 등을 이해한다.
- ⑤ 놀이방법과 놀이가 끝난뒤 놀이기구의 처리과정을 살펴본다.
- ⑥ 민속놀이 발굴활동 조사표를 예시하면 Table 9와 같다.

⑦ 조사활동후 조사기록의 보전을 위해 모든 자료는 체계 있게 정리되어야 한다. 발굴조사표를 중심으로 사전조사한 것, 현지에서 기록한 사실을 바탕으로 형식에 맞게 재정리. 분류하여 스크랩하거나 파일 등에 묶어서 잘 보관하고, 가능하면 비디오 촬영도 실시한다.

⑧ 민속놀이중의 집단놀이는 대동적 성격을 지닌 축제가므로, 놀이 자체만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조사해서는 안되며 전체적 진행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놀이를 체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Table 9. 민속놀이 발굴활동 조사표

조사일 및 시간		날	씨
조사장소			
인솔자		지도자	
조사한 사람			
조사환경			
제보자 성명 및 연령			
유래배경			
놀이방법			
놀이기구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4. 미술문화 발굴 활동

1) 의의

향토지역에 존재하는 미술품을 조사하여 그 미술품의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가치 등을 이해하거나 인근지역 및 역사시대의 자신의 지역의 유적을 박물관 등지에서 조사하고 나면 더욱 자신의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로 인하여 애향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술문화의 발굴활동은 무엇보다 직접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또 가장 중요하고 발굴작업에서 효과가 클 것이다. 이론적 작업을 세우는 것은 보고 난후에야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2) 사전학습활동

미술문화는 크게 네분야 -회화·조각·건축·공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향토지역에 존재하는 회화를 조사하

기 위해서는 국립박물관, 각 대학 박물관, 개인 미술관(간송, 호암 등)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불화일 경우는 사찰을 찾아가서 조사할 수 있다. 조각의 경우는 회화와 마찬가지로 토우(土偶) 등의 고유조각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십이지석(十二支石), 문무석(文武石) 등 석물(石物)은 경주 등지의 왕릉에 많으며, 우리나라 조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조각은 국립 박물관에도 많이 소장되어 있고 사찰에도 소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면 된다. 건축분야의 조사는 사찰, 사지, 궁궐, 문화재 등의 많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공예는 금속공예, 도자공예 등 박물관이나 개인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면 된다.

3) 실계활동

① 조사 발굴 분야의 결정 : 크게는 조각, 회화, 건축, 공예 부분으로 구분하고, 조각 부분이라면 고유조각인지 불교조각인지, 건축부분이라면 목조건축인지 석조건축

물인지를, 그리고 공예부문이라면 금속공예인지 도자 공예인지를 구분한다.

- ② 주제 혹은 목적의 설정 : 향토지역에 존재하는 미술문화의 발굴이 깊이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주제 혹은 목적의 설정을 필요로 한다.
- ③ 일정 계획 : 일정 계획에 있어 우선 발굴조사활동에 소요될 시간을 주제에 적합하게 정해야 한다. 일정을 계획할 때는 교통, 숙박, 인원 수 등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매우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다닐 경우에는 이동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지도를 펼쳐 놓고 합리적으로 짜야 한다. 주제설정이나 일정계획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그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일정에 동반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 ④ 기초자료의 사전조사 : 같은 대상일지라도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이 보는 것과 어느 정도의 기초지식을 습득한 후에 보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몰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으나, 조금 알고 나서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세부를 볼 수 있을 뿐더러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을 보는 안목은 기초적으로 이렇게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떠나기 전의 기초자료 조사는 필수적인 것이다.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출판된 조사연구물, 연구학회지, 전문잡지, 향토사연구물, 역사적 배경구전자료 등을 개인 또는 소집단 별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현대의 상황 즉 조사지의 지리적 특성, 교통, 특산물, 주변환경 등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 ⑤ 예비모임 : 출발하기 삼, 사일 정도 전에 한 두 차례의 예비 모임을 갖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참가 인원을 점검하고 그들에게 일정과 준비물,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사한 자료를 참가할 사람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다.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이 조사한 자료를 복사하여 나누어 갖고 그것에 대해 토의하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보충한다.

4) 방법 및 보존

- ① 대상묘사 : 예술의 대상은 자연물이 아닌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대상은 원리가 어떻게 말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이 생겨진 자체의 원리가 있어 그것을 형식이라 한다. 그러나 형식을 따지는 것만으로는 대상을 분류할 수는 있으나 특징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런데 미술사에서 중요시 하는 '양식'이란 대상물이 갖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여 노출, 규정하는 것이고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묘사이므로 대상 묘사는 미술의 연구작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상 묘사란 감각적으로 본 바를 구체적 언어로 옮기는 것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보편적 상식으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다. 대상에 따라 큰 것 부터, 혹은 위나 아래 부터, 혹은 몇 단계로 나누는 방법 등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워 묘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한 스케치나 실측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다.

- ② 대화와 토의 : 대상에 대해 보고 느끼는 바를 서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자기와 다른 여러 각도의 관점을 알 수 있고 자신이 간과하고 있는 것을 알아 차릴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묻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지의 사람, 예를 들어 현지 주민, 절의 스님이나 박물관 직원의 이야기를 청해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 이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유물은 접할 기회를 만든다거나 자료를 취재함에 있어 뜻 밖의 큰 수확을 얻을 수도 있다.

- ③ 사진촬영 : 자료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은데, 보통의 흑백·칼라 사진 보다는 슬라이드 사진이 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진열장 안에 있거나 너무 어두운 곳에 있는 유물은 현지 사람의 허락을 얻어 밖으로 가지고 나와 찍을 수 있으면 좋다.

- ④ 미술문화 발굴활동 조사표를 예시하면 Table 10과 같다.

Table 10. 미술문화 발굴활동 조사표

조사일 및 시간		날	씨
인	솔	자	
조사참가자			
조사대상			
조사내용			

⑤ 발굴활동에서 조사해야 할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조각 · 건축 · 성터 · 사찰 · 탑
 - 명칭, 크기, 소재지, 문화재일 경우 지정 번호
 - 축조한 때와 시대적 배경
 - 지형적 특성
 - 축조한 목적과 필요성
 - 관련 인물의 활동과 일화
 - 당시의 생활상과 관련 유물 및 유적
 - 축조한 방법과 그 특징
 - 교과서와의 관련
 - 역사적 의의

- 회화 · 능 · 묘소 · 고분 · 사당
 - 관련 인물과 활동 및 공적
 - 일화나 무용담
 - 축조시대와 방법
 - 출토물과 그 시대의 생활 모습
 - 시대적 배경과 문화

- 공예 · 유물
 - 제조시대
 - 만든 재료 및 제조방법과 사용된 곳
 - 그 시대의 생활모습
 - 보존 상태 및 보존방법

⑥ 보존활동 : 조사활동의 계속적인 발전과 뒤에 조사할 사람들을 위해서 조사일지와 조사표, 현장에서 묘사한 것, 사진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⑦ 평가활동 :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일정평가와 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일정에 대한 평가는 계획된 일정과 그 진행에 무리가 없었는지, 사전

의 자료 조사는 충분했는지 등을 개선의 방향으로 서로 이야기를 한다.

5. 전설지명 발굴 활동

1) 의의

지명(地銘)은 화석과 같은 것으로 장구한 시간동안에 조상들의 역사와 전설과 생활이 용해되어 흘러내려 오면서 부지불식간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기에 우리의 안에 있으며 우리 사이에 있는 무언(無言)의 약속과 같은 것으로 현재의 지어 붙이기 식의 땅이름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 더우기 지명은 인명(人名)이 혈연(출생)을 나타내는 것처럼 지연(출신)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향토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국토를 사랑하는 첫단계이며, 애향심은 애국심으로 연결된다. 특히 지명에 얽힌 전설과 유래는 우리 선조들의 생활과 신앙, 그리고 당대의 관념을 나타낼 뿐 아니라 역사의 숨은 이면을 드러내어 보여 주기도 한다. 쓰여진 역사란 어차피 불완전한 것이 많으며 그 당시의 소박한 민중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전설 지명중 그 소재에 따라서 야사(野史)의 한 측면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도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전설 지명의 조사는 비단 역사 뿐만 아니라 민속학, 언어학, 지리학 등 실로 많은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종합적으로서의 지명 연구가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명발굴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사실을 지명을 통하여 현장감있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야사적 측면에서 정사의 이해를 돕고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 조상들의 사고방식, 신앙과 풍속, 생활양식

등 그 시대상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 네번째로는 지명속에 나타나는 역사적 주요 등장 인물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가문과 씨족사 나아가서는 그 출신지의 향토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된다는 점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전설지명이 곧바로 정사나 야사와 연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소재는 대부분이 미화되었거나 과장 또는 비슷한 내용을 차용한 것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사전학습활동

전설 지명을 조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의 선택은 소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략의 경우 문헌을 통하거나 현지의 주민에게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의 구분은 엄격히 나누어져서 별개의 활동으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서 조사활동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문헌조사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주로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 참고해야 할 자료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지리지 등의 고문헌과 동국여지도, 대동여전지도 및 청구도 등의 고지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활동에 비추어 요구되는 것은 향토의 읍지, 면지, 향토지 등이다. 조사자는 조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향토지 등을 잘 읽고 문헌상 채집 가능한 전설지명을 확인하여 기초 지식을 쌓아야 한다.

3) 실제활동

조사대상의 분포와 그 소재에 따라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전설지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제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는 조사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으

로 제보자는 주로 마을의 노인 또는 그 마을에 대대로 살아온 집안의 청년 지도층을 선정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또 실제 조사시에는 제보자의 음성을 녹음해 두거나 전설지명과 관련된 소재에 대해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조사일지에는 자료조사 당시의 상황, 장소, 시간, 조사자의 성별, 주소, 성명, 교육정도, 생활, 종교 등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4) 방법 및 보존

전설, 지명 조사활동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현장답사지를 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사하고자 하는 전설·지명에 대해 사전지식을 갖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② 조사지를 선정 후 조사지역의 전설, 지명을 잘 설명하여 줄 수 있는 정보제공자를 선정한다.
- ③ 적절한 조사시기를 정한다. 이때는 정보제공자의 여건 또는 상황을 고려한다.
- ④ 조사인원과 준비도구를 결정한다. 조사인원은 10명 정도가 좋으며 이야기를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를 준비해가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카메라를 준비해가면 더욱 좋다.
- ⑤ 조사일지를 작성한다.
- ⑦ 전설지명 발굴활동 조사표를 예시하면 Table 11과 같다.
- ⑧ 조사활동의 계속적인 발전과 뒤에 조사할 사람들을 위해서 조사일지와 녹음테이프, 사진 등을 토대로 하여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둔다. 이는 조사활동의 마무리 작업이자 다음의 활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Table 11. 전설지명 발굴활동 조사표

조사일 및 시간	날	씨
조사장소		
인 술 자	지도자	
조사한 사람		
제보자 성명 및 연령		
전설, 지명에 대한 설명		
전설, 지명에 관한 배경 이야기		

6. 민간신앙 발굴 활동

1) 의의

‘민간신앙’이라 할 때, 확실한 개념규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대개 민간층에서 전승되는 자연적 신앙, 즉 민간인이 신앙하는 자연적 종교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여기서 자연적 종교라 함은 인위적 종교에 대칭되는 말로서, 교조에 의한 교리를 문서화시킨 경전이나 체계화된 조직이 없이 자연적 상황 그대로의 종교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의 민간신앙은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신년제를 비롯한 계절제, 가신신앙, 동신신앙, 무속신앙, 독경신앙, 점복신앙, 풍수신앙, 동물신앙, 예조, 민간의료 등이 있다.

민간신앙은 원래 아득한 옛날 원시시대에 발생하였던 고대 계종교의 잔존현상으로서 오랜 역사시대를 통과하는 동안에 사회의 저류로서 민중생활에 많은 영향을 발휘해 온 한민족의 보편적 기층 종교현상이다. 동시에 그것은 불교, 유교, 도교 및 기독교 등 외래종교가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그것들과도 융합하면서 민중생활의 심층을 점유해 왔을 뿐만 아니라, 외래종교를 한국적 종교로 만드는 토대로 작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민간신앙은 그 폭이 넓고 잡다한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으니 이처럼 여러 종교와 혼합되면서 중층적 구성을 형성해 온 것이 민간신앙의 구조적 특징이기도 하다.

조사자가 민간신앙을 발굴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의 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민간신앙이 고대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민간층의 살아있는 현재의 종교로서 한국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현재의 종교라는 말은 민간신앙이 과거에 한 때 성행했던 과거의 종교나 또는 먼 이상이나 미래를 전망하는 관념적인 미래지향의 종교가 아니고 민간층의 생활현장에 뿌리를 내린 생동하는 현재의 산 종교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신앙의 제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계절제 : 춘하추동의 계절에 따라 풍요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제의적 행사로 농경계의 성격을 지니고, 가신, 동신신앙과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 ② 가신신앙 : 가택의 요소마다 신이 있어서 집안을 보살펴 주는 것이라 믿고, 이 신에게 정기적인 의례를 올리는 것으로 집안의 평안과 가족의 안전을 기원하는 성격을 갖는다.

- ③ 동신신앙 : 마을의 수호신을 신당에 모셔놓고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기 위해 동민들이 합동으로 제의를 올리는 마을의 공동신앙으로 보통 동신제, 동제라고 부른다.
- ④ 무속신앙 : 무당을 주축으로 민간층에서 전승되고 있는 자연적 종교현상으로, 신병(神病)이라는 종교체험을 통하여 신의 영력을 획득하여 신과 교통하는 신권자인 무당에 의해 길흉화복의 인간 운명을 굿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 ⑤ 독경신앙(讀經信仰) : 독경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신앙의 한 형태로서 독경의 경문은 불교, 도교, 무속 등의 사교가 혼합, 기록화된 것으로 신장의 위력에 의해 재액과 잡귀를 물리치는 내용이다.
- ⑥ 자연물 신앙 : 산이나 나무, 암석, 강, 바다 등의 자연무생물과 구렁이, 호랑이, 말, 곰 등의 동물, 까치, 까마귀 등의 조류를 신성시하여 신앙하는 것이다.
- ⑦ 영웅신앙 : 영웅의 영혼을 신으로 신앙하는 것으로 왕이나 장군 중 억울하게 죽거나 특히 공이 많은 인간의 영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다.
- ⑧ 사귀신앙 : 인간을 방해하는 잡귀들을 신앙하여 그 잡귀들로부터의 피해를 면하려는 것이다.
- ⑨ 풍수신앙 : 산수의 영기가 인간의 길흉화복을 조절한다고 믿어 영기있는 지형을 찾아 묘자리와 집터를 잡는 것이다.

2) 사전학습활동

민간신앙 발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에는 민간신앙이 현재에 있어서도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보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활동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신앙속에 담겨 있는 민간인의 사고 유형을 조명하여 그 기저에 있는 한국인의 전통적 심상을 찾아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통적 심상이 현대인의 심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사실 민간 신앙이 한국인의 종교적 생리에 맞고, 외래종교가 그런 민간신앙의 기반위에서 한국적 종교로 변질된다는 것을 민간신앙 속에 한국인의 종교적 공통심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민간신앙의 연구를 통해서 한국인의 전통적 심성이 갖는 기능적 측면을 재발견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심을 높인다.

사실 지금까지 민간신앙을 통해서 본 한국의 전통적 인간상은 역기능적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비판되어 왔다. 즉 민간신앙으로 인하여 이성이 마비되고 체념과 나태심을 심어 주고, 윤리의식과 역사의식이 결여되었으며, 책임의식과 독립심이 결여되었다는 것 등이다. 또한 이런 민간인들의 사고나 행동을 가리켜 비과학적·비논리적·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인위적인 현대문명의 입장에서 보는 편견일 뿐, 민간인들 자신에게는 여전히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합리성이나 과학성 자체가 불편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민간인의 미분적 순환성에 기반을 둔 자연적 심성 속에는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지만, 인정, 소박, 인내, 낙천성 등의 긍정적 요소가 들어 있음을 연구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3) 실제활동

민간신앙이 어떻게 한민족의 기간종교 구실을 해오고 현재까지 전승되는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제들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 다음은 발굴활동 이전에 설정하는 과제들이다.

- ① 전승 형태와 변화의 동력
- ② 민간신앙의 핵과 민간신앙의 존재 이유
- ③ 민간신앙의 기저인 신성의 본질 이해
- ④ 민간신앙내 원사고의 탐구 방법과 현대인의 사고와의 비결
- ⑤ 민족적 종교의 기반과 오래종교와의 상관관계

⑥ 민간신앙이 가지는 사회성과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
 민간신앙의 제유형은 민간신앙이 사람주위의 모든 것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성에 따라 그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다. 그러나 전국 문화원에서 수집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신신앙이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그 흔적이 지속되고 있는바 동신신앙의 구체적 발굴활동을 살펴보고자.

4) 방법 및 보존

① 현장답사지를 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사하고자 하는 동신신앙에 대해 사전지식을 충분히 갖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② 적절한 조사시기를 정한다. 이때는 동신신앙의 행사가 있는 날을 잡아서 직접 가서 보도록 한다.

③ 조사인원과 준비도구를 결정한다. 조사인원은 너무 많은 수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며 이야기를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나 카메라를 준비해 가면 더욱 좋다.

④ 조사일지를 작성한다.

⑤ 민간신앙 발굴활동 조사표를 예시하면 Table 12와 같다.

⑥ 산신제 기록 일지를 예시하면 Table 13과 같다.

⑦ 조사활동의 계속적인 발전과 뒤에 조사할 사람들을 위해서 조사일지와 녹음테이프, 사진 등을 토대로 하여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둔다. 이는 조사활동의 마무리 작업이자 다음의 활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Table 12 민간신앙 발굴활동 조사표

조사일 및 시간		날 씨	
조사장소			
인 술 자		지도자	
조사한 사람			
제보자 및 성명 및 연령			
동신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Table 13. 산신제 기록 일지

*산신제명
(1) 신명 및 위치:
(2) 크기 및 형태: 수 효 재 료 업힌 전설
(3) 제 관:
(4) 제일시:
(5) 제 비:
(6) 제 물:종류 및 진설도
(7) 제 순:

⑨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충북 청원군 남일면 월오리 장승제(현재 청주시 편입)

(1) 신명 및 위치 - 동네 한구석 둔덕이 진곳에 오래된 느티나무와 팽나무(左), 느티나무와 아카시아 나무(右)가 밭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男(右), 女(左) 장승이 기대어 서있다.

(2) 크기 - 男·女 장승 모두 높이가 210cm, 둘레가 40cm 정도이다.

(3) 재료 - 소나무

(4) 제작 - 2년에 한번씩 세우며 제작자는 한자를 아는 동네 노인이 담당했으나 지금은 리장이 담당한다.

(5) 제일시 - 음력 정월 대보름 아침 9~10시경

(6) 제물 - 떡시루, 돼지머리, 술잔, 포, 곶감, 밤, 대추

(7) 제순 - 분향 → 초헌(선도 할아버지, 할머니) → 아헌(장승) → 종헌 → 소지 → 음복순이다.

7. 향토음식 발굴 전개활동

1) 의의

향토음식은 향토의 지세, 기후와 같은 풍토적 여건에 따라 주요 산물의 품종이 결정되고 그 고장에서 많이 산출되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을 원료로 하여 그 고장의 기본

음식이 개발된다. 그러므로 향토음식은 재료가 가진 특성 뿐만 아니라 그 고장 특유의 조리 가공법에 의해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그 가공법 역시 그 곳의 기후를 비롯한 여러가지 자연환경의 영향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향토 음식에 지방색이 뚜렷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자기고장의 향토음식의 종류와 주민들의 성향, 음식의 맛, 음식차림의 습관 등을 조사하여 고장 향토음식의 특성을 발견해내고 또 이를 다른 지역의 향토음식과 비교하여 지역별 특징 등을 이야기 해 보면 향토문화발굴에 있어 유익한 활동이 될 것이다.

2) 사전조사활동

각 지방에는 그 지방 특유의 풍토와 식품재료로 인해서 각기 다른 향토음식이 개발된다. 이러한 향토 음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선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대중을 이루는 것을 역시 주식류이며 그외 떡류, 찬, 청음류, 조과류, 그리고 의례 음식류가 있다.

향토 음식 조사 활동은 먼저 지역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피는 일부터 시작한다. (지역의 지리, 문화, 경제, 기타의 상황을 자료를 통해 점검한 다음) 고장의 특징적인 음식을 알아보는 일부터 상차림의 방법에 따는 특징, 식사예절, 맛의 성향, 강도 등을 조사하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그리고 향토 음식에 관한 기초 지식은 [식생활 전서]

[식생활 백과] [향토 음식] 등 서적을 통해 함께 연도록 한다.

〈 각 지방 향토음식의 예 〉

- ① 서 울 : 장국밥, 설렁탕, 흑임자죽, 잣죽, 비빔국수, 국수장국, 메밀만두, 편수, 신선로, 갈비찜, 호박전, 각색전골, 홍합초, 전복초, 너비아니, 간략, 편육 등
- ② 경기도 : 조랭이떡국, 개성편수, 삼김치. 무우찜, 평김치, 여주산병, 양주메밀국수, 홍해삼, 닭젓국, 칼국수, 인천조개국, 수수부꾸미, 색떡 등
- ③ 충청도 : 쇠머리떡, 청국장, 조치, 어리굴젓, 굴냉국, 무우엿, 나박김치냉면, 호박범벅 등
- ④ 전라도 : 석화젓, 천어탕, 진주비빔밥, 콩나물국밥, 홍어회, 애저, 붕어조림, 꼬막무침, 두루치기, 문어조림, 뽕장어구이, 가지김치, 고들빼기김치 등
- ⑤ 강원도 : 감자지짐, 감자송편, 메밀막국수, 메밀총떡, 오징어구이, 오징어순대, 옥수수범벅, 북어식해, 취나물, 오징어젓, 느타리버섯나물, 전복죽 등
- ⑥ 경상도 : 생선회, 미더덕찜, 추어탕, 골곰짬지, 채첩국, 따로국밥, 대구탕, 파전, 진주비빔밥, 풍장어국, 애호박죽, 콩가루배추국, 소라찜, 해물잡채, 해파리회, 고추김치, 부추김치 등
- ⑦ 제주도 : 고사리국, 냉국, 조기국, 전복죽, 옥돔죽, 옥돔구이, 자리회, 메밀저배기, 무우냉국, 생선국수, 돼지고기조림 등

3) 실제 활동

향토음식 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선는 음식에 대한 풍습과 식사예절 및 각 지방의 향토음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기초지식으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조사에서는 고장의 특산물, 풍토, 기후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은 기능보유자들에게 향토음식의 종류, 제조법을 이론적으로 설명듣거나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견학한다. 이때에는 필기도구, 녹음기, 카메라 등을 준비하여 조리방법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그 음식의 특징과, 그 특징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것인지를 이해하여 본다.

4) 방법 및 보존

- ① 현장방문지를 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사하고자 하는 음식에 대한 사전지식과 식사예절을 기초지식으로 알아서 가는 것이 좋다.
- ② 적절한 조사시기를 정한다. 이때는 기능보유자들과의 시간을 잘 맞추어서 계획의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한다.
- ③ 조사인원과 준비도구를 결정한다. 조사인원은 너무 많은 수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며 이야기를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나 카메라를 준비해 가서 가능하면 조리의 방법과 절차를 담아오면 더욱 좋다.
- ④ 조사일지를 작성한다.
- ⑤ 향토음식 발굴활동 조사표를 예시하면 Table 14와 같다.

Table 14. 향토음식 발굴활동 조사표

조사일 및 시간	날 씨	
조사장소		
인 술 자	지도자	
조사한 사람		
조사환경		
제보자 성명 및 연령		
향토음식의 종류 제조법, 특징		
향토음식에 관한 배경 이야기		

8. 지역인물과 사상 조사활동

1) 의의

지역의 사적을 조사하거나 전설, 민담 등을 수집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사적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럴때 흔히 갖게 되는 의문중의 하나가 그 인물의 행적은 어떠 했으며 사상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역사책이나 피상적으로 정리된 전기는 개개인이 가진 의문을 완전히 풀어주지 못한다. 이러한 때에 지역의 사적지를 중심으로 하여 직접 인물 연구를 시도해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인물연구는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나 자아의 세계관을 확충시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첫째,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자부심을 통하여 평범하게 보아왔던 향토가 인물을 배출한 위대한 땅으로 변화하게 된다.

둘째, 인물이 성장한 배경, 특히 바위, 암자, 고목, 하천 등의 자연환경이 인물의 사상형성에 어떤 계기가 된것으로 인식되며, 향토의 자연 환경은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됨으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세째, 인물 연구를 통해 자아를 재정립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정립하게 된다. 어떤 인물의 특징적인 사상을 연구함으로써 그가 세계와 우주를 보던 관점을 이해하게 되고 나름대로 하나의 철학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사회와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가능케 한다.

네째, 인물 연구는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사전조사활동

- ① 지역에 대한 객관적 조사 : 지역의 사적 조사는 유적, 유물, 지명, 민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사찰이나 학교, 전석지 등은 가치있는 조사자료가 된다. 이밖에 사지, 지리지, 군읍지 등에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개략적으로 서술되고 있으니 필수 자료로 활용한다.
- ② 인물의 선정 : 인물의 선정은 자신(또는)단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군·읍지(誌)·사지(誌) 등과 문화원의 문헌을 참조하며, 특히 선정된 인물에 대한 자료가 많을수록 연구에 유리하다는 것을 고려한다

- ③ 연구방법 : 인물이 선정된 후 그 인물의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느 시기에 이루어진 저술을 중심으로 하거나 저술이 많지 않은 경우 서신이나 실록 등에 나오는 간접 자료를 이용한다. 사상 연구는 전체적으로 그 인물의 전반적인 사상 경향을 연구하는 경우와 한 가지의 관점을 정해놓고 그것을 깊이있게 다루어 보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를 중심으로 그 인물의 역사적, 사상적인 위치, 역할, 후대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다소 개략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시대적인 중요한 사건이나 사상적인 관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점을 중심으로 깊이있게 연구하게 된다. 이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름대로 깊이있는 식견을 가질 수 있으며, 뜻하지 않게 좋은 자료를 발견하여 전문적인 연구 못지않은 성과를 올릴 수도 있다.

인물 연구 조사 활동은 현장답사와 문헌연구를 겸하는 것이 좋다. 즉, 현장답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한 후 재답사를 통하여 연구성과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다.

3) 실제활동

연구의 방법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연구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간, 비용, 역할분담 등을 포함한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차례차례 실천해 나가야 한다.

- ①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간의 설정 : 회원들이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주로 여름·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다음의 Table 15와 같이 설정한다.
- ② 자료수집 및 정리 : 자료는 도서관, 서점, 사찰 등에서 현장사진, 탁본, 이야기, 지형조사, 개인의 저술, 서신문답, 상소문, 실록의 기록, 논문, 이에 관련된 서적 등을 폭넓게 수집한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기록된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구전되는 설화나 전설, 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그 인물에 대한 생생한 자료를 얻기에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 자료 수집이 끝나면 직접적인 1차자료와 2차자료를 구분하고 필요 부분을 복사하거나 카드로 정리하여 연구하기에 편리하도록 배열한다.
- ③ 원자료의 강독 및 관련자료 수집 : 원자료를 부분별로 나누어 읽으면서 카드 정리 및 관련자료 수집을 병행한다.

- ④ 연구분담과 추진 : 실제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각 분야별로 조를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일 것이다. 조는 인물의 생애, 인물의 사상, 관련 자료의 조사, 수집, 자료정리 등으로 나눌수 있다.
- ⑤ 중간보고회 : 연구가 상당한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중간보고회를 가져서 서로의 연구 진행정도를 파악하고 연구추진상의 문제점을 토의하여 이후 계속적인 연구

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⑥ 연구보고서 작성과 보존 : 연구보고서가 완성된 후 연구의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며 연구보고서와 수집된 자료들은 체계있게 정리·보존하여 이후 다음의 조사자들에게 훌륭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Table 15.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간 설정표

구 분	기 간	내 용	책 임 자	비 고
1. 연구대상설정				
2. 자료수집				
3. 자료정리				
4. 현장답사				
5. 중간보고				
6. 보고서작성				
7. 연구보고 및 평가회				

IV. 사례지역의 향토문화 발굴전개 활동 방안의 예시

1. 사례지역의 선정과 향토문화 현황

이 장은 실제로 농촌청소년단체가 그들의 지역에서 향토문화 발굴활동을 전개할때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 농촌지도사 및 자원지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구체적인 사례지역 중심으로 세밀하게 예시하였다.

경기도 남양주군은 경기도 동부에 속하며 동은 가평, 남은 하남, 서는 서울, 북은 포천에 인접하였으며 서북부는 도봉산과 대치한 수락산, 서울근교에 명산으로 알려진 천마산을 비롯하여 곳곳에 산이 많으며 평지가 적고 중부 이남은 구릉이 기복하여 북한강과 남한강의 합류점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며 평지가 있어 지질이 대체로 비옥한 편이다.

그리고 남양주군에는 석조물 1점과 지석묘 4점의 향토유적을 비롯하여 총 25개의 국가 및 경기도 지정의 보물, 사적, 민속문화재가 존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안면에 남양주군의 대표적 문화재인 다산정약용(茶山丁若鏞) 선생의 묘소, 생가(여유당), 전시관이 있다. 또한 화도면의 흥선대원군묘(興宣大院君墓)를 비롯하여 각지에 김상헌 선생묘, 김상용 선생묘, 이맹현 선생묘, 박원중 선생묘 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한확(韓確)선생 신도비, 흥

국사(興國寺), 봉선사(奉先寺), 수종사(水鍾寺), 불암사(佛岩寺), 내원암, 묘적사(妙寂寺), 세정사(世淨寺), 보광사, 견성암 등 많은 문화재를 소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과 광릉(光陵), 사릉(思陵) 등도 존재한다.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은 전반적으로 소규모의 농농사와 밭농사를 위주로 하는 빈촌이며 또한 주민들의 대다수가 공장에 취직하여 재촌 탈농의 상태가 심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인근의 마을에 비해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마을내 수동중학교의 학생들이 전통문화전승의 차원에서 풍물을 배워 각종 행사에서 상당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활동이 시작된 배경과 현재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수동중학교에서는 4년에 1번꼴로 교내 운동회의 마스게임에 풍물놀이를 포함시켰었는데, 이것이 지역주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또 지역내 기업체에서 악기를 지원함에 따라 이를 활성화 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평소 풍물놀이에 관심이 있는 교장선생님의 뜻에 따라 농업교사인 권태창 선생님과 외부 요양차 수동면 입석리에 머물고 있던 이영환씨의 지도로 '전통문화전승단'을 결성 활동을 시작했다.

회원은 1학년, 2학년, 3학년 총 50명이며 이중 40명이 4-H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신입생(1학년)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충원이 이루어진다. 모임은 학기중에는 1주일에 1번 있는 특활시간에 모임을 갖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경

연할 경우가 생기면 방과후 1~2시간의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여름·겨울 방학기간에는 10~15일 정도의 특별 연습 기간을 갖고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다.

'전통문화전승단'은 군민의 날, 노인잔치, 장애인 복지대회, 4-H 농악경진대회, 경기도 민속경연대회 등의 대외적 행사나 고장의 행사에 출전하여 전통문화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 사례지역의 향토문화 발굴전개 활동

1) 발굴전개 단체의 선정

수동중학교의 전통문화전승단의 구성원은 총 50명인데 이중 40명이 4-H회원이다. 4-H회원중 1학년생은 8명, 2학년

은 6명, 3학년은 26명으로 모두 학급의 간부학생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동중학교의 전교생이 200여명인 점과 학업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토문화 발굴전개 단체를 4-H회원중 향토문화 발굴에 관심이 많고 자원하는 회원 중심으로 10명 정도로 정하도록 한다.

2) 향토문화의 유형 설정

남양주군 수동면 주민 13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발굴보존할 필요가 있는 향토문화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물음에 아래 Table 16와 같이 응답하였다. 응답별 내용을 살펴보면 향토모습의 이해 17.4%, 민속놀이 14.5%, 인물과 사상 연구 13%, 미술문화 12.3% 등이 발굴보존의 필요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Table 16. 발굴대상 향토문화의 유형

구 분	향토모습의 이해	민요	민속놀이	미술문화	전설명지	민간신앙	의식주	인물과사상	무응답	계
f	24	12	20	17	8	8	11	18	20	138
%	17.4	8.7	14.5	12.3	5.8	5.8	8.0	13.0	14.5	100.0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남양주군내의 향토문화의 현황을 고려하여, 수동 중학교 4-H회가 발굴해야 할 향토문화로는 4개의 유형을 설정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모습의 이해

향토문화 발굴활동의 기초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향토를 이해함으로 애郷심이 길러지고 향토문화의 발굴의욕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민속놀이

구체적으로 현재 수동중학교의 전통문화전승단에서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풍물을 다루기로 하였다.

셋째, 인물과 사상연구

남양주군 출신으로 지역의 자랑스러운 여겨지고 있으며 실학을 집대성하여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지닌 인물인 정약용을 선정하였다. 정약용선생의 묘소와 생가는 조안면에 위치한다.

넷째, 미술문화

수동면에 인접하여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양주

군의 유명한 전통사찰들 중의 하나인 화도면의 보광사를 선정하였다.

3) 발굴대상지역의 지도



① 수동중학교 ② 정약용선생묘 ③ 보광사

4) 유형별 향토문화 발굴전개 장기계획

수동중학교 4-H회가 3년간에 수동면을 중심으로 한 향토의 유형별 문화를 발굴전개하기 위한 장기계획은 Table 17 과 같다.

Table 17. 향토문화 발굴전개 장기계획표

향토문화의 유형	1 년째	2 년째	3 년째
향토모습 이해	조사활동		
민속놀이	풍 물	풍 물	
인물과 사상	정약용	정약용	
미술문화		보광사	보광사

5) 실행계획(연간계획)

수동중학교 4-H회가 3년간의 장기계획에 따라 각 년도별로 실시할 발굴전개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모습 조사활동

본 연구 V.1의 향토모습조사 활동지침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1. 조사기간의 설정
2. 조사항목선정 : 향토의 자연환경, 역사, 인구특성, 성씨별 분포, 조직 등
3. 자료수집대상 선정
 - 탐방기관 : 면사무소, 군문화관, 학교도서관
 - 참고문헌 : 군 발전사
 - 문의대상인물 : 문화관장, 전직면장, 마을유지, 마을에서 나이많은 노인
4. 활동 조직 구성
 - 총책임자 선정, 조사항목별 책임자 선정, 자료수집 대상별 책임자 선정,
 - 문의대상 인물별 책임자 선정, 활동내용별 책임자 선정
5. 월별계획

계획 및 준비, 조사활동, 분석정리. 조사서 작성 등의 시기를 월별로 결정한다.
6. 조사활동 실시
7. 조사활동 내용 분석정리
8. 조사서 작성
9. 발표회 개최
10. 평가
11. 보관 : 인쇄물, 소책자 발간

(2) 민속놀이 발굴활동

본 연구 V.3의 민속놀이 발굴활동 지침을 참고하여 수동중학교 전통문화전승단의 풍물놀이를 지도교사, 자원지도자의 지도아래 발굴보전할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발굴조사 기간 설정
2. 풍물놀이의 전체적 현황 조사

자원지도자, 구성원의 숫자, 사용악기 등을 파악
3. 풍물놀이의 내용 조사
 - 악기와 연주자(장고, 징, 북, 쟁가리, 소고, 상고 등)
 - 놀이 형태(원으로 돌기, 엇갈려 돌기, 달팽이 줄이기, 달팽이 늘리기 등)
 - 장단별 놀이 형태조사(세마치, 굿거리, 자진머리 등에 따른 놀이 형태)
 - 수동중학교 전승단의 풍물놀이 특징 조사

4. 전수방법 조사

연습시간, 연습기간, 연습형태

5. 풍물놀이의 의의 조사

지도교사 및 자원지도자, 4-H담당 지도사의 지도와 협조를 구함

6. 보존방법 조사

비디오 촬영, 사진, 기록문 작성

7. 평가

(3) 인물과 사상발굴 활동

본 연구 V.8의 인물과 사상연구활동 지침을 참고하여 남양주군의 대표적 인물인 정약용과 그의 사상을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1. 연구기간 설정

주로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2년내에 완성한다.
2.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의 설정 : 인물의 생애, 인물의 사상, 인물에 관한 자료
3. 조사활동 및 자료정리를 조직 구성
 - 1조 : 인물의 생애
 - 2조 : 인물의 사상
 - 3조 : 관련자료의 조사, 수집
 - 4조 : 자료정리
4. 답사활동

묘소와 생가(여유당), 전서관 등을 답사
5. 자료수집 활동
 - 사지, 군지 등 인물에 대한 기록이 서술된 자료를 수집한다.

- 국사책, 참고도서, 잡지 등에서 정약용에 대해서 조사한다.
- 정약용과 관련되는 도서를 정리하여 본다. (저서 : 목민심서, 흙흙신서, 경세유표, 아언각비, 여유당정서, 마과회통, 아방강역교 등)
- 지역유지, 국사교사, 향토문화원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6. 자료의 정리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한다.

7. 원자료를 부분별로 나누어 읽으면서 카드 정리 및 관련 자료 수집을 함께한다.

8. 연구보고서 작성

9. 평가

계획된 일정에 대한 일정평가와 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한다.

(4) 미술문화 발굴활동

본 연구 V.4의 미술문화 발굴활동 지침을 참고하여 보광사의 미술문화를 발굴한다.

1. 연구기간 설정

주로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2년내에 완성한다.

2. 조사항목 선정

3. 기초자료의 사전조사

4. 예비모임 : 일정과 준비물 등을 점검한다.

5. 미술문화발굴 조사표를 작성한다.

6.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 명칭, 크기, 소재지, 문화제일 경우 지정 번호
- 축조한 때와 시대적 배경
- 지형적 특성
- 축조한 목적과 필요성
- 관련 인물의 활동과 일화
- 당시의 생활상과 관련 유물 및 유적
- 축조한 방법과 그 특징
- 교과서와의 관련
- 역사적 의의

7. 조사활동 내용을 분석한다.

8. 조사서 작성

9. 보존

조사일지와 조사표, 현장에서 묘사한 것, 사진 등을 잘 보관한다.

10. 평가

계획된 일정에 대한 일정평가와 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한다.

Ⅶ. 요약 및 제언

1. 요약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보루라 볼수 있는 농촌지역사회의 향토문화는 도외시되고 있으며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또한 이농의 가속화로 인하여 농촌은 사회·경제·문화 등 제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특히 젊은 층의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이농으로 농촌청소년 단체의 활동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에 기존의 농촌청소년 단체인 4-H회로 하여금 향토문화의 발굴·전개 활동을 벌여 나가게 함으로서 농촌청소년 개인에게는 고장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을 갖게하고 농촌청소년 단체에는 새로운 활동영역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향토문화 발굴보존의 필요성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관련문헌고찰, 질문지조사 및 농촌현장답사 등의 방법으로 농촌지역사회 청소년 단체(학교 4-H회)가 지역사회의 향토문화를 발굴·보전하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농촌지도사와 농촌교사 및 자원지도자들이 지도할때 실제적 지침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문화는 地緣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밀접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향유하는 문화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향토문화의 유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까닭에 명료한 설정이 어렵지만 1)향토 모습의 이해 2)민요 3)민속놀이 4)미술문화 5)전설 지명 6)민간신앙(종교문화) 7)의·식·주 8)인물 9)민간속신어 및 방언 10)통과의례 11)세시풍속 12)축제로 분류될 수 있었다.

셋째, 지역사회주민 및 농촌지도개발요원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연령별,성별,학력별로 응답에 큰 차이를 나타냄 없이 향토문화의 발굴·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넷째, 농촌청소년단체인 4-H회는 최근에 농촌의 객관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서 다양한 과제 활동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향토문화발굴 활동을 전개할 농촌청소년 단체는 학교 4-H회가 적합하였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농촌청소년단체가 발굴하고 보존할 향토향토문화의 유형을 1)고장모습의 이해 2)민요 3)민속놀이 4)미술문화 5)전설지명 6)민간신앙(종교문화) 7)의·식·주 문화 8)인물과 사상연구로 설정하였고, 각 유형별로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지침을 의의, 사전학습활동, 실제활동, 방법 및 보존 항목으로 진술하였다.

여섯째, 이 지침을 기초로 해서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이 지역의 대표적 향토문화로 볼 수 있는 향토모습조사 활동, 민속놀이, 인물과 사상, 미술문화에 대해 수동중학교 4-H회가 발굴활동을 전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지도지침을 제시하였다.

2. 제 언

농촌청소년단체가 앞으로 향토문화를 발굴전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제약조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문화의 발굴 및 보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나 그것의 발굴·보존의 움직임과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점이다. 이는 산업화에 의한 농업의 상대적 낙후와 이에 따른 전반적인 농촌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농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신의 고향이 삶의 터전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고 향토의 문화 역시 중요성과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학생 4-H회의 활동도 다양한 향토문화를 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주로 농악놀이문화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전통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청소년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 이어 농촌청소년 단체가 향토문화 발굴 활동을 전개할 때 그들을 위한 활동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촌청소년 단체가 향토문화 발굴 활동을 전개할 때 농촌청소년 단체를 지도하는 농촌지도사, 농촌학교 교사 및 자원지도자 등을 위한 지도지침 개발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이 연구에 있어서 농촌청소년 단체를 위한 지침서 개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실제적으로

사례지역에서 향토문화 발굴을 시범적으로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나가야 한다.

셋째, 향토문화에 대한 전문적 지도자의 부족이다. 향토문화의 발굴전개의 지도는 특성상 문화에 대한 전반적이며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지도자의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지도자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효과적인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농촌청소년들의 향토문화 발굴전개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와 자원지도자를 육성·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학생 4-H회에 대한 지원체제의 미비 및 재정지원의 부족이다. 농촌학생 4-H회가 원활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다양한 지원과 경제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학교 4-H회 지원 및 협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사, 지도소의 청소년 담당지도사, 향토의 자원지도자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나아가 재정지원의 협조체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기관, 4-H후원회, 농협, 농촌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의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반적 농촌청소년단체 활동의 침체이다. 농촌청소년단체 활동이 침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성원의 감소에 기인하며 농촌에서 이농이 지속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지역단위(읍·면) 4-H회 마저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고 학교 4-H회의 활동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제화·산업화·지방화 등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농촌·농업 및 농촌주민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을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농촌청소년 단체활동 프로그램을 새로운 차원에서 다양하게 연구, 모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경기향토문화연구회, 1986, 경기문화
2. 경산문화원, 1992, 경산문화
3. 공주문화원, 1993, 공주문화 제2집
4. 권이종외, 1992, 사회교육을 통한 시민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연구, 교육부
5. 김원용, 1980, 한국문화의 기원, 탐구당
6. 김태호외, 1994, 농촌사회문제론, 농림수산정보센터
7. 김포문화원, 1991, 김포문화
8. 농촌진흥청, 1993, 농촌진흥삼십년사

9. 농촌진흥청, 1981, 한국 4H운동 발달사
10. 레스리 A. 화이트 지음, 1990, 이문웅 옮김, 문화의 개념, 일지사
11. 박미란, 1987, 한국사회에 있어서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8.
12. 방일영문화재단, 1994, 향토축제의 가능성과 미래
13. 백기완외, 1984, 공동체 문화 제 2 집, 도서출판 공동체
14. 산청문화원, 1993, 산청문화
15. 속초문화원, 1992, 속초의 향토민속
16. 에드워드 쉴즈 저, 1992, 김병서 신현순 공역, 전통: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민음사
17. 윤중현, 1993, 국민학교에서의 민속놀이 실태와 그 활성화를 위한 탐색,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염돈민, 1979, 전통문화와 행정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 석사학위논문
19. 이광규, 1971, 한국의 사회구조와 문화유형, 한국문화인류학 4권
20. 이윤희, 1994,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 한국농촌 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pp. 280~290.
21. 이재일, 1992, 전통문화의 수용에 관한 일연구, '고교생의 행동과 의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 이중한, 1988, 문화 프로그램 자료집, 정음사
23.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 1994, 한국농촌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24. 임재해, 1986, 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25. _____, 1991,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 지식산업사
26. 정지웅 외, 1985, 농촌지도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p. 93~94.
27. 임희섭, 1987, 사회변동과 가치관, 나남
28. 장주근, 1986,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고
29. 정은주, 1993, 향토축제와 '전통'의 현대적 의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30. 정지웅, 1984, 한국의 농촌 '그 구조와 개발', 서울대학교출판부, pp. 312~339.
31. 정지웅, 김지자, 1986, 사회교육학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32. 조동일, 1966 여름, 전통의 퇴화와 전승의 방향, 창작과 비평 3, pp. 357~359.
33. 진안문화원, 1992, 진안문화
34. 천안문화원, 1991, 천안의 민속, 도서출판 한국문화 청원문화원, 1992, 청원문화
35. 최민호, 1987, 농촌청소년지도론, 서울대학교출판부
36. 최민호, 강재태, 1985, 농촌지도론:농촌사회교육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37. 최 협, 1994,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 한국농촌 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pp. 201~205.
38. 한국새마을청소년후원회, 1988, 한국새마을청소년 (4-H) 운동 40년사
3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전통사상의 현대적 의미
40.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991, 한국청소년단체총람
41.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 1990, 21세기의 농촌청년
42.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문화권탐방활동
43. _____, 1992, 전통문화활동
44. _____, 1991, 청소년단체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45. _____, 1992, 청소년지도론
46. 한국청소년연맹, 1992, 누리활동지도서
47. _____, 1987, 한울활동사례집
48. 한국청소년학회, 1993, 청소년학연구 제1권 제 1 호
49. 한상복, 1980,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 3 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0. 한상복외, 1985,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51.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학연구회, 1986, 현대의 사회교육, 정민사
52. Cook, Lloyd Allen, 1950, "A Sociological Approach to Education", New York:Mc-Graw-Hill, pp. 48~49.
53. Durkeim, E. 1964,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 Free Press, p. 297.
54. Hillery, G. A., 1958,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3, March, pp. 117~118.
55. Gusfilled, Joseph R., 1967, "Tradition and Modernity : Misplaced Polarities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pp. 351~362.
56. Olsen, Edward G. et al., 1961, "School and Community" (2nd ed.),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p. 51.
57. Sanders, Irwin T., 1968,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3, David L. Sills(ed.), pp. 86~91.
58. Tonnies, F. 1963 Community and Society, C. P. Loonis trans. ed., New York : Harper and Row Torch Books, pp. 4~5.